

종로·중구 지회

한 가정을 예로 들 때 '말이'란 존재는 단순히 옷사람이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이루는 뼈대요, 울타리의 의미를 지닌다. 한 집안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중심으로 결속의 구심점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는 '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의 1번지라는 상징적 의미 내포

그런 면에서 볼 때 서울 종로·중구 지회는 직접 간접적으로 제과업계의 말이란 존재 같은 곳이다. 우선 지역적으로도 종로·중구 지회가 위치한 곳은 서울이 이 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600년이란 세월 동안 발전의 토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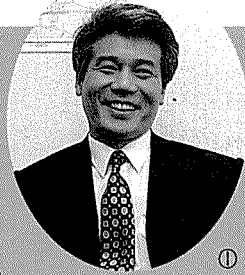
이곳을 거점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정치·사회·문화는 물론 상업의 중심지로 모든 분야에서 1번지라는 의미성을 띤다.

이런 사실은 제과업계도 마찬가지이다. 종로·중구 지회의 제과점은 곧 제과업계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뉴욕제과, 고려당, 크라운베이커리의 준양산 업체가 이곳의 본점을 거점으로 성장했고 태극당과 지금은 없어진 덕수제과, 프린스제과, 명보제과, 케이크파라 등의 대표적 제과점, 현재도 건재한 종로복떡방, 무과수제과 등의 업소는 우리나라 제과업계 역사의 한 단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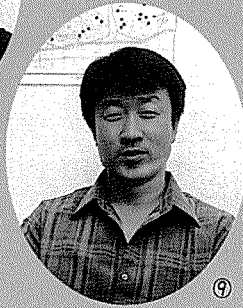
특히 이들 업소가 지니는 의미는 이곳을 거쳐간 기술인들이 뿌려 놓은 토양이 밀거름이 돼 업계 기술 발전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렇듯 제과업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종로, 중구지회는 올해 구역장제도 도입과 경영 및 기술세미나 실시, 공동구매 사업확대 등 활발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변화된 새모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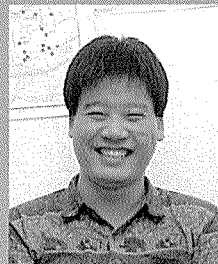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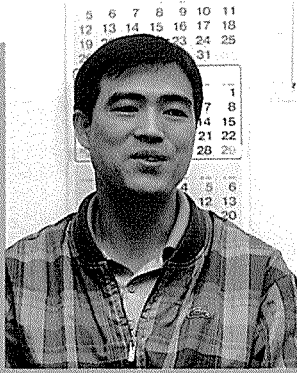
변화 통해 새 모습 선보인다



차지하고 있는 종로·중구 지회(지회장 김태식) 창립된 것은 1990년 4월. 언뜻 지역 대표적 제과점의 오랜 역사에 비해 지회의 창립 역사가 5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종로·중구 지회는 중앙에서 서울시 지부가 운영될 때 직할 조직으로 운영돼 분회와 같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다 1990년 4월 서울시 지부가 해체되면서 독립하여 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로·중구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지부 시절 타 조직은 지역별로 자체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으나 종로·중구 지회는 서울시 지부가 해체되면서 80여 회원에

- ① 김태식 지회장
- ② 전희일 부지회장
- ③ 조성민 고문
- ④ 김성기 이사
- ⑤ 김산철 이사
- ⑥ 이기철 이사
- ⑦ 류재영 이사
- ⑧ 김기출 이사
- ⑨ 안상순 이사
- ⑩ 이순호 이사
- ⑪ 김지희 이사
- ⑫ 류제신 이사
- ⑬ 윤창희 이사
- ⑭ 최현태 부지회장
- ⑮ 하택근 감사
- ⑯ 박영환 감사
- ⑰ 김광대 사무국장



로·중구 지역은 모든 면에서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잦은 위생 검열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 위생에 만전을 기해 위생 모범 업종으로 선정될 정도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과업 발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서울의 1번지 상권답게 각종 패스트푸드 및 대형 외식 업종이 진출해 있어 이들 업종과 경쟁해야 하고 주택이 없고 빌딩만 즐비한 지역적 특성으로 저녁이면 도시가 텅비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의식과 제품 개발 논의가 그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모이면 과업계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과 제품 및 샌드위치 제품 등의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모이면 과업계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과 제품 및 샌드위치 제품 등의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구역제도, 자체 공동구매 경영 및 기술 세미나 실시 예정

종로·중구 지회는 지난 4월 8일 정기 총회를 열고 김태식 지회장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새 지회장 부임을 시작으로 각 회원 업소를 찾아 다니며 의견 수렴과 앞으로 더 활성화된 지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종로·중구 지회는 1차적으로 종로 7개 구역, 중구 5개 구역 도합 13개 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구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회원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또 종로·중구 지회의 지역 특성상 패스트푸드 등 업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기술 세미나를 1년에 2번 정도 전체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하고 지역별로도 1달에 1번


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 구매 사업을 확대해 유지, 양금, 계란, 우유 등 같은 품목이면서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회원 업소에 공급되는 주요 품목의 공급과 조사를 마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일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외에 포장 재료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내년쯤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해 회원의 친목과 단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5월 3일 실시된 종로구청 위생업소 종사원 단막극 경연대회 참가가 좋은 호응을 얻음으로써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해 회원의 단합과 제과업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앞서서 언급한 바 있듯

종로·중구 지회의 역사는 제과업계 전체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종로·중구 대표적 업소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제과점이었다고 이를 통해 제과업계 위상 제고와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공은 크다. 하지만 지역적 특수성과 뒤늦은 조직의 독립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금까지는 기반 다지기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반 다지기를 거쳐 제과업계의 중심부로서 다양한 사업 계획과 활발한 활동으로 그 위상에 걸맞는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 종로·중구 지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박중선>

종로·중구 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1번지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곳의 유명 업소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제과점으로 제과업 위상 제고는 물론 기술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적립된 재정, 사무실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초대 조성민

지회장과 김승도 부지회장이

사비를 들여 사무실 집기를 마련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의 단합으로 91년 종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92년 신당동, 94년 다시 종로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종로·중구 지회의 총 회원수는 135회원. 여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과우회를 통해 회원의 경조사에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부부 동반 대만 여행을 실시하는 등 친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종로·중구 지회는 매달 월례회를 개최해 협회 운영 사항이나 주요 행정 지침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 중